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3. 9(화)
배포 즉시

매수	참고자료	사진	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일본구주팀
2	X	○	과장 : 류호국 (031-8008-2180)
			팀장 : 김남국 (031-8008-2763)
			담당 : 박경아 (031-8008-2777)

첨단 유럽기업 에이티앤에스·수달그룹 4800만 달러 정도 추가 투자 확정

- 오스트리아 첨단PCB 제조기업 에이티앤에스 그룹과 벨기에 건축소재 제조기업 수달그룹 소재·부품기업 아시아시장 수출확대를 위해 경기도 내 제조시설 증축
 - 에이티앤에스코리아(안산)/4,300만달러/신규고용 150명
 - 수달코리아(안성)/500만달러/신규고용 20명
- 수달코리아 인력확보 애로 호소,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신규 채용 지원 예정

첨단 PCB(고효율 인쇄회로기판)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 에이티앤에스 그룹(오스트리아)와 유럽최대 규모의 친환경 건축소재 제조기업 수달 그룹(벨기에)이 한국 내 제조시설 증설과 수출확대를 위해 경기도에 4,800만 달러(한화 약 540억 원)를 증액 투자한다.

각각 안산과 안성에서 제조시설을 운영하며 아시아 시장수출을 추진해 온 에이티앤에스와 수달그룹은 올해 증액 투자를 통해 공장을 증축하고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스트리아 에이티앤에스 그룹은 고집적 PCB 생산 세계 2위 기업으로, 연매출 10억2,800만 유로(약 1조 4천억 원), 임직원 1만239명을 보유한 글로벌기업이다. 안산에 소재한 (주)에이티앤에스코리아는 한국법인의 기술적 강점인 의료용 초소형 PCB 기술력 확대를 통해 4,3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약 8,260㎡ 규모의 제2공장을 설립해 향후 3년간 150여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다.

수달그룹은 유럽 최대 규모의 건축소재 벨기에 소재 제조사로, 매출 8억9,300만 유로(1조 2천억 원)와 임직원 3,200명을 보유하고 있다. 수달코리아(주)는 최근 30% 이상의 국내 매출 성장세에 맞춰 2,150㎡ 규모의 공장 증축을 위해 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20여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수달코리아는 정부의 ‘소·부·장 전문기업인증’을 취득한 기업으로, 이번 투자와 함께 경기도에 채용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경기도외국인투자 기업지원센터(GAFIC)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 온라인 채용관 등을 통해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류호국 도 투자진흥과장은 “코로나 국면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본사로부터 증액투자 결정을 이끌어 낸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감사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채용지원을 위해 온라인 채용관(워크#)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인·구직을 희망할 경우 온라인 채용관(<http://foreigncompanyjob.com>)을 통해 신청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031-259-6521)로 문의하면 된다.